

# 스포츠클럽 참여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Sportsclub Participation on Social Integration

조옥연  
서울대학교

Woogyeon Jo(woogijo@snu.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클럽참여율과 사회통합 관련지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스포츠클럽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OECD 국가 중 스포츠클럽참여율 및 사회통합 관련지표의 수집이 가능한 26개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통합 관련지표인 생활만족도, 상호신뢰도, 사회적고립, 행복지수, 사회갈등지수 등을 선정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클럽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이었고, 스포츠클럽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한국,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미국이었다. 둘째, 스포츠클럽참여율은 생활만족도, 상호신뢰도, 사회적고립, 행복지수, 사회갈등지수 등 사회통합 관련지표와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스포츠클럽참여율은 생활만족도, 상호신뢰도, 행복지수와 정적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고립과 사회갈등지수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 중심어 : | 스포츠클럽참여율 | 사회통합 | 사회통합 관련지표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sportsclub on social integration through the sportsclub participa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dex. To achieve this goal, 26 countries among OECD members were selected. Life satisfaction, mutual trust, social isolation, happiness index, social conflict index were selected for correlation analysis.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Norway, Denmark, Germany, Sweden had higher sportsclub participation, on the contrary, Korea, Poland, Hungary, Greece, USA had lower sportsclub participation. Second, sportsclub participation ha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life satisfaction, mutual trust, social isolation, happiness index, and social conflict index. Specifically, sportsclub participation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life satisfaction, mutual trust, happiness index and negative relationship with social isolation, social conflict index.

■ keyword : | Sportsclub Participation | Social Integration | Social Integration Index |

## I.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빈부격차, 탈산업화, 가족 구조 및 가치관 변화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

적 위기 현상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개인 및 집단 간의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급격한 산업화에 의한 사회변화로 여러 가지 사회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사회갈등으로

접수번호 : #120202-002

접수일자 : 2012년 02월 02일

심사완료일 : 2012년 02월 23일

교신저자 : 조옥연, e-mail : woogijo@snu.ac.kr

인해 발생하는 사회비용이 연간 300조에 달하는데, 이는 1인당 GDP의 27%에 해당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6].

사회갈등이 유발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부터 인지한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이문화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특히 사회통합기재로서 스포츠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스포츠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의 통합을 촉진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켜 주는 보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사회통합 수단이 될 수 있다[17].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과의 접촉이 증가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신체적·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응집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3].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통합은 모든 사람이 스포츠 기회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스포츠 활동이 사회화 및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29]. 국민들의 스포츠 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공공 스포츠정책의 목적으로 이는 정부의 책임이다[43].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각종 스포츠정책을 통해 국민의 단합을 촉진하고 민족정신을 함양하는데 정치적인 목적을 지니고 스포츠를 활용하기도 한다[15]. 이러한 의미에서 스포츠 활동은 사회화의 주요한 수단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개인을 집단속으로 통합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4][24].

이렇듯 최근 사회통합 및 발전을 위한 기재로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학문적인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박채복[14]은 스포츠가 국민의 자부심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결속을 강화한다는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발전을 측정하는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그 가치가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Burnett[26]은 오스트리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스포츠발전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개인이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성과를 제시하였으며, Kelly[31]는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는데 공헌하는 스포츠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인 예시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스포츠의 사회통합 효과를 바탕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지나면서 사회통합과 관련된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사회응집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스포츠클럽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2].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스포츠클럽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성인남성 위주로 구성된 생활체육동호인의 형태에서 벗어나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스포츠 소외계층을 스포츠클럽으로 적극 유입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다[11].

스포츠클럽 활동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사회자본의 형성이나 사회연결망에서의 활동관계, 교환자원, 자원교환관계 유형, 공동체 등을 주로 규명하여 사회적인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3]. 국내의 경우 장진우, 강희민[21]의 연구에서는 스포츠클럽 참여 빈도와 정도는 주관적인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참가 빈도가 높을수록 정서적인 안정과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유찬[19]은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지역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인관관계가 발전하고 커뮤니티 의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해외의 경우, 노르웨이 Ministry of Cultural affair[34]의 조사는 스포츠클럽과 상업적인 스포츠센터 간 사회응집성 형성의 차이를 규명하였는데, 스포츠클럽을 통한 사회응집성이 훨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Ulseth[46]와 Seippel[41]은 노르웨이에서 스포츠클럽이 사회응집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는데, 이는 노르웨이의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Ulseth[46]는 상업 스포츠센터 참여자와 스포츠클럽 참여자 간 사회통합의 형성정도를 비교분석하여, 스포츠클럽 참여자의 사회통합효과가 일반 스포츠 참여자에 비해 더욱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스포츠클럽 활동이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응집성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별 비교를 실시해 스포츠클럽의 사회통합 기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 스포츠클럽의 국가 간 비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이 부족하여 국가 간 비교연구가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스포츠클럽 활동의 국가 간 연구에 필수적인 비교 가능한 기초데이터가 부족하고 국가 간 비교양식이 서로 상이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 및 스포츠클럽의 사회통합 기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국가별 스포츠클럽 참여율을 조사하여 스포츠클럽활동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스포츠클럽 활동이 어떻게 사회통합에 기여하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사회통합을 위한 스포츠클럽의 역할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스포츠와 사회통합

스포츠는 사회구성원의 결속을 촉진하고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4]. 이는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의 연대감이 형성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원칙과 규범을 습득하게 되어 공통의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때문이다[9]. 박채복[14]은 구체적인 스포츠의 사회통합기능으로 바람직한 가치관과 이념들을 반영하여 사회의 공통성 유지에 기여하며, 조직의 결집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전체사회의 목표와 가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현실에 대한 적합한 사고와 행동양식을 습득하는 적응기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가 건강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구성원 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사회적응정책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5].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스포츠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14][31].

최근 세계적으로 '위험에 처한(at risk)' 개인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해 스포츠에 기반을 둔 개입(sports-based interventions)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스포츠가 한 사회의 주요한 사회정책의 수단임을 의미한다[31].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사회정책 어젠다(agenda)의 넓은 의미에서 스포츠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개혁을 위해서 시민사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배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를 활용하고 있다[26]. 또한 노르웨이에서도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공적자금(public funding)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으며[42],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활동으로 Sports City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스포츠가 지닌 본연의 경쟁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1993년부터 정부주도로 시작되었으며[43],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범죄나 약물남용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회정치적 목표를 지니고 있다[42]. 이는 정부차원에서 스포츠를 사회정책(social policy)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이다[27].

Ragheb & Griffith[40]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이 개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의 하위지표인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욕구 충족을 통해 행복감을 느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증대함을 의미한다[8]. 결과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식과 소속감이 증대되고 집단의 응집력이 강화되며, 팀과 자신이 속한 집단과 일체감을 가짐으로써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17].

사회 통합은 평등(equality)과 기회(opportunity)의 공평한 분배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스포츠는 국민들을 위한 긍정적인 형태의 활동으로 장려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분으로 활용된다[31]. 사회적 배제는 빈곤의 해결을 통한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부족뿐만 아니라,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시스

템으로부터의 격리나 시민권으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한 다[1]. 이는 사회적 배제가 건강, 노동, 교육, 주거, 사회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고,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는 다른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4].

따라서 독일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차단하고 이질적인 문화를 소유한 이주민과 기존 주민과의 접촉 빈도를 높여주기 위해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통합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7].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사람들과의 접촉이 증가하고, 이러한 사회자본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33].

## 2. 스포츠클럽의 사회통합 기능

스포츠클럽은 특정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직되어 관리 및 운영되는 집단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생조직이다[2].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포츠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스포츠클럽이 결성되어 스포츠클럽만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구조 및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3]. 이로 인해 최근 단순한 스포츠 참여에서 벗어나 개인 및 지역의 발전에 일정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의 사회적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스포츠클럽은 전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화를 통해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10].

스포츠클럽 활동의 사회적 기능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공통의 취미나 목적을 바탕으로 조직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속감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21]. 또한 스포츠클럽 참여를 통해 공감대 형성, 상호작용 참여 확대, 세대 간 격차 감소, 신뢰 쌓기 등이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2]. 이유찬[19]은 스포츠클럽은 지역주민의 상호작용 중 하나의 형태이고 지역사회 속에서 개인의 상호작용을 확대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클럽의 사회적 기능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43]. 영국의 경우 정부주도하에 스포츠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자발적인 스포츠클럽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다[27]. 노르웨이 정부도 스포츠클럽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사회통합임을 명시하고 정부의 주요한 사회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46]. 또한 호주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스포츠클럽제도를 중점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 수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기 때문이다[2]. 사회통합을 스포츠클럽의 주요한 목표로 삼는 국가에서는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스포츠클럽에 가입시켜 주민들과의 접촉빈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17].

스포츠클럽 참여를 통해 사회구성원간의 접촉빈도를 높이는 것은 개인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41]. 사회자본은 한 개인이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그 집단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구조 또는 사회적 관계의 한 측면으로[28], 신뢰, 규범, 연결망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간주된다[39]. 따라서 사회구성원 간의 접촉빈도의 증가는 개인의 사회자본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31], 스포츠클럽은 네트워크, 공동체 의식, 규범, 사회적 적응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자본의 축적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3].

일반적으로 국민들 개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주관적인 상태들은 사회자본으로 총칭되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신뢰와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관계인 네트워크로 모아지는데[13], 스포츠클럽은 이러한 관계가 가장 활성화된 조직 중 하나이다. 개인들은 스포츠클럽 참여를 통해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모임에 자주 참여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스포츠클럽 참여는 개인들이 한 집단에 참여하면서 영위하는 삶과 해당 커뮤니티의 건전성을 포

괄적으로 보여준다[3].

결과적으로 사회자본은 개인이 소유한 사회관계나 집단소속 여부를 이용하여 가치 있는 경제적·상징적 자원을 얻는 능력을 의미하거나, 다수의 개인들에 의한 공동체에 대한 참여나 사회적 제도에 대한 신뢰를 통해 집단적으로 이득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20]. 따라서 스포츠클럽 참여는 구조화된 행위를 유발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사회응집력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OECD 국가 중 스포츠클럽 참여율 및 사회통합 관련지표의 수집이 가능한 26개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자료는 OECD 통계자료, Eurostat(유럽공동체 통계청), 각국의 통계청 등을 참고하였으며, 공식적인 자료를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구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능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최근 연도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국제자료의 경우 국가별 자료가 상이하고 자료의 수집 연도가 상이한 특성이 존재하나, 해당 국가의 사회, 경제,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27]에 한해서 사용하였다.

#### 2. 자료분석 및 주요변수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클럽과 사회통합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SPSS. 18.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먼저 사회통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회통합 관련연구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회통합 하위지표 중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스포츠클럽과 관계

가 있다고 판단되는 변수로 생활만족도, 상호신뢰도, 사회적고립, 행복지수, 사회갈등지수를 선정하였다.

생활만족도는 가장 대표적인 긍정적 사회통합지표로 [1],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의미하며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의 만족 정도를 주관적인 잣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다. 상호신뢰도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공동체의 과제나 목표를 추구하는데 공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사회적고립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접촉 부족은 사회·경제적 기회를 감소하여 개인의 사회적인 열망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사회통합 및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1]. 행복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 환경요인, 건강 등이 포함된다[7]. 사회갈등지수는 사회집단이 사회적 지위나 자원 등을 소유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 IV. 결과

#### 1. 스포츠클럽참여율

OECD 2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스포츠클럽참여율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분석대상 국가 중 스포츠클럽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이었고, 스포츠클럽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한국,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미국이었다. 스포츠클럽참여율의 평균은 17.35%였고, 최고 값은 노르웨이(36.0%), 최소값은 미국(1.0%)으로 나타났다.

표 1. 스포츠클럽참여율

국가	스포츠클럽참여율	국가	스포츠클럽참여율
한국	6.30	벨기에	18.00
일본[11]	15.80	프랑스	22.00
미국[38]	1.00	네덜란드	30.00
캐나다[30]	18.00	오스트리아	25.00
호주[25]	11.00	룩셈부르크	27.00
뉴질랜드[44]	17.90	폴란드	5.00

영국	13.00	체코	11.00
스웨덴	29.00	헝가리	5.00
덴마크	31.00	슬로바키아	14.00
노르웨이[45]	36.00	그리스	5.00
핀란드	23.00	이탈리아	10.00
아일랜드	22.00	스페인	13.00
독일	31.00	포르투갈	11.00
평균	17.35		

\* 기타 국가 자료: European Commission, *Special Eurobarometer: Sport and Physical Activity*, 2010. 한국의 경우는 생활체육 동호인 비율을 대체하여 사용함.

스포츠클럽참여율의 기초통계 분석은 [표 2]와 같다.

표 2. 스포츠클럽참여율 기초통계분석

	국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스포츠클럽 참여율	26	1.0	36.0	17.35	9.628

## 2.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국가별 사회통합 관련 지표는 [표 3]와 같다. 생활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은 6.71이며 덴마크(8.0), 뉴질랜드(7.6), 핀란드(7.6), 네덜란드(7.6) 등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국가에 속하며, 이탈리아(5.0), 헝가리(5.2), 슬로바키아(5.2) 등이 생활만족도가 낮은 국가들이다. 상호신뢰도의 경우 전체 평균은 73.04이며 노르웨이(148.0), 스웨덴(134.5), 덴마크(131.9) 등이 상호신뢰도가 높은 국가들이며, 포르투갈(21.9), 슬로바키아(33.4), 폴란드(40.9), 스페인(40.9) 등이 상호신뢰도가 낮은 국가들에 속한다. 사회적으로립의 경우 전체 평균은 3.33이며, 헝가리(11.8), 폴란드(9.9), 포르투갈(5.6) 등이 사회적으로립이 높은 국가에 속하며, 스웨덴(0.3), 핀란드(1.0), 네덜란드(1.3) 등이 사회적으로립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행복지수의 경우 평균은 0.61이며, 룩셈부르크(0.745), 노르웨이(0.736), 스웨덴(0.734) 등이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에 속하고, 헝가리(0.404), 슬로바키아(0.427), 폴란드(0.450) 등이 행복지수가 낮은 국가에 속한다. 사회갈등지수의 경우 전체 평균은 0.41이며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 한국(0.71) 등이 사회갈등이 높은 국가에 속하며, 덴마크(0.24), 스웨덴(0.25), 핀란드(0.28) 등이 사회갈등지수가 낮은 국가들이다.

표 3. 국가별 사회통합 관련 지표

국가	생활 만족도 [35]	상호 신뢰도 [47]	사회적 고립 [36]	행복 지수 [7]	사회갈등 지수 [16]
한국	5.7	56.9	3.7	0.475	0.71
일본	6.5	79.6	3.7	0.617	0.42
미국	7.3	78.8	1.5	0.588	0.44
캐나다	7.4	85.9	1.8	0.697	0.34
호주	7.4	92.4	-	0.618	0.33
뉴질랜드	7.6	102.2	-	0.649	0.36
영국	7.0	61.7	2.1	0.666	0.38
아일랜드	6.0	72.1	1.6	0.646	0.38
스웨덴	7.4	134.5	0.3	0.734	0.25
덴마크	8.0	131.9	1.8	0.692	0.24
노르웨이	7.5	148.0	1.0	0.736	0.29
핀란드	7.6	117.5	1.0	0.687	0.28
독일	6.6	75.8	1.7	0.638	0.36
벨기에	7.4	63.0	5.2	0.599	0.32
프랑스	7.0	37.9	2.5	0.626	0.38
네덜란드	7.6	90.6	1.3	0.669	0.29
오스트리아	7.1	70.2	2.0	0.712	0.31
룩셈부르크	6.8	53.9	2.7	0.745	-
폴란드	5.9	40.9	9.9	0.450	0.76
체코	6.4	48.8	3.9	0.548	0.37
헝가리	5.2	44.8	11.8	0.404	0.44
슬로바키아	5.2	33.4	2.8	0.427	0.72
그리스	6.4	54.6	1.2	0.556	0.50
이탈리아	5.0	60.8	4.6	0.58	0.56
스페인	7.1	40.9	4.1	0.633	0.39
포르투갈	5.4	21.9	5.6	0.525	0.53
평균	6.71	73.04	3.24	0.61	0.41

복지관련 지표의 기초통계분석은 다음의 [표 4]과 같다.

표 4. 복지관련 지표의 기초통계분석

	생활 만족도	상호 신뢰도	사회적 고립	행복지수	사회갈등 지수
N	26	26	24	26	25
최소값	5.0	21.90	.30	.404	0.24
최대값	8.0	148.0	11.80	.745	0.76
평균	6.71	73.03	3.24	.612	0.41
표준편차	.872	32.770	2.744	.095	0.143

상관분석을 통해 스포츠클럽참여율과 사회통합 관련 지표인 생활만족도, 상호신뢰도, 사회적으로립, 행복지수, 사회갈등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스포츠클럽참여율은 생활만족도, 상호신뢰도,

사회적고립, 행복지수, 사회갈등지수와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클럽참여율은 건강수명, 생활만족도, 상호신뢰도, 행복지수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사회적고립, 사회갈등지수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각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1.생활만족	1					
2.상호신뢰	.691**	1				
3.사회고립	-.590**	-.548**	1			
4.행복지수	.769**	.662**	-.721**	1		
5.사회갈등	-.785**	-.829**	-.658**	-.496*	1	
6.스포츠클럽	.540**	.620**	-.551**	.754**	-.665**	1

\*  $\alpha$ .05 \*\*  $\alpha$ .01

## V. 논의 및 제언

### 1. 논의

스포츠는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응집성을 강화하는 수단이다[17]. 특히 스포츠클럽은 사회통합 또는 사회응집성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s)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체육격차에서 벗어나 공평한 사회적 기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37]. 스포츠클럽참여를 통해 형성된 인간관계는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스포츠클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책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적 가치가 향상되어 사회통합에 공헌한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클럽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역할을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기 위해, 우선 분석대상 국가의 스포츠클럽참여율을 측정하여 보았다. 조사 결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은 노르웨이 가 가장 높고 미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는 1970년대 초부터 정부의 스포츠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사회통합을 유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6]. 이는 노르웨이가 조사대상 OECD 26개 국가 중에서 스포츠클럽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

는데, 이는 스포츠클럽과 같은 공공주도의 스포츠 활동이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민간이 공급하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미국은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체육진흥정책을 주도하고 있지만 주로 민간 주도로 스포츠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22].

스포츠클럽참여율을 측정하여 사회통합 관련지표인 생활만족도, 상호신뢰도, 사회적고립, 행복지수, 사회갈등지수와의 관계를 규명해 본 결과, 첫째, 스포츠클럽참여율은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Layard[32]에 의하면 생활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주위로부터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며,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도가 높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스포츠클럽 참여는 건강과 체력의 증진 및 스트레스 해소, 대인관계 유지 및 정신력의 향상, 기분전환에 기여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8].

둘째, 스포츠클럽참여율은 상호신뢰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상호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사회문제 해결 및 협동심을 강화하여 사회응집성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스포츠클럽 참여는 구성된 상호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이러한 상호신뢰도는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43].

셋째, 스포츠클럽참여율은 사회적고립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고립이 낮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늘어나 사회, 경제적 기회가 확대되어 사회응집성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 2010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12] 결과, 체육 동호인 조직 가입 이유로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운동하는 것이 좋아서’가 6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스포츠클럽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스포츠클럽참여율은 행복지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행복지수는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행복지수가 높으면 전반적인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010 국민생활체육활동 참

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한 달에 2-3번만 참여(69.43점)해도 비참여자(65.49점)에 비해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스포츠클럽참여율은 사회갈등지수와 부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갈등지수가 낮다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권력이나 자원 등이 공평하게 배분되어 상대집단을 의식하여 불필요한 경쟁이 벌어지는 정도가 낮음을 보여주는데, 스포츠클럽 참여를 통해 사회갈등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클럽과 사회통합 관련지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스포츠클럽참여가 사회통합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차후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개별적인 지역사회 단위로 실시한 스포츠클럽의 사회통합 효과에 대한 연구를 국가 간의 연구로 확대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스포츠클럽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역할을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2.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클럽참여율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 관련지표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스포츠클럽과 사회통합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스포츠클럽참여율은 생활만족도, 상호신뢰도, 사회적고립, 행복지수, 사회갈등지수 등 사회통합 관련지표와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를 통하여 스포츠클럽참여가 어떻게 사회통합에 기여하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사회통합이 스포츠클럽참여로 인해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스포츠클럽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클럽과 사회통합과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그 관계가 대략적으로 입증된바, 이제 스포츠클럽은 사회갈등을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공공의 가치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스포츠클럽 참여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문제인 빈부 격차,

편 가르기 등과 같은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스포츠정책은 사회응집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더 이상 스포츠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 및 사회갈등 해소에 공헌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강신욱,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 전망, 제66권, pp.9-31, 2006.
- [2] 강효민, "도시공동체로서 향우회 스포츠클럽활동과 정체성의 재구성",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4권, 제2호, pp.125-149, 2011.
- [3] 강효민, 박기동, "지역사회에서 스포츠클럽 활동과 사회적 자본 형성",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1권, 제4호, pp.845-863, 2008.
- [4]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2004.
- [5] 권기남, 이혁기, "IPA 기법을 통한 외국 이주노동자의 스포츠클럽 활성화방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43권, pp.193-203, 2009.
- [6] 김사업, *스포츠사회복지론*, 21세기교육사, 2006.
- [7] 김용하, 윤강재, 김계연, *OECD 국가 행복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8] 김주호, "문화 관점에서 본 생활체육",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9] 김홍태, 최경호, "한국형 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 방안",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6권, 제3호, pp.1007-1016, 2005.
- [10] 문화관광부, *2007년도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추진계획*, 2007.
- [11]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도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0.
- [12]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2011.
- [13] 박길성,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아세아연구,



- 제45권, 제2호, pp.109-139, 2002.
- [14] 박채복, "스포츠와 사회통합의 정치사회적 함의", 평화학연구, 제11권, 제3호, pp.255-276, 2010.
- [15] 박호성, "국제스포츠 활동과 사회통합의 상관성, 가능성과 한계", 국제정치논총, 제42권, 제2호, pp.93-109, 2003.
- [16]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2009.
- [17] 송형석,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 그 가능성의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제50권, 제2호, pp.31-44, 2011.
- [18] 이상덕, 최천진, "성인여성들의 생활체육참여동기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20권, pp.671-684, 2003.
- [19] 이유찬, "스포츠클럽 활동과 커뮤니티 의식형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40권, 제2호, pp.211-220, 2001.
- [20] 이재열, 남은영,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인맥의 특징과 중간집단 참여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2권, 제7호, pp.178-214, 2008.
- [21] 장진우, 강효민,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참가와 활동 몰입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0권, 제2호, pp.363-375, 2007.
- [22] 체육과학연구원, *선진국의 체육행정체제와 스포츠정책*, 1998.
- [23] 한준, "사회적 자본의 국제비교", 직업과 인력개발, 제10권, 제3호, pp.14-21, 2007.
- [24] 황선환, 조옥연, 김미량, "여가제약 수준에 따른 여가제약 협상전략 사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50권, 제3호, pp.457-464, 2011.
- [25]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9-10 Participate in sport and physical recreation Australia*, 2010.
- [26] C. Burnett, "Social impact assessment and sport development,"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Vol.36, No.1, pp.41-57, 2001.
- [27] F. Coalter, *A wider social role for sport: Who's keeping the score?* London: Routledge, 2008.
- [28] J. S. Coleman,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29] M. Collins and T. Kay, *Sport and social exclusion*, London: Routledge, 2003.
- [30] F. Ifedi, *Sport participation in Canada 2005*, Statistics Canada, 2008.
- [31] L. Kelly, "Social inclusion through sports-based intervention?," *Critical Social Policy*, Vol.31, No.1, pp.126-150, 2010.
- [32] R. Layard, "Happiness and public policy: A challenge to the profession," *The Economic Journal*, Vol.116, pp.24-33, 2006.
- [33] N. Lin,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34] Ministry of Cultural affair, *Changes in sport on the governments relation to sport and physical activity*, 2000.
- [35] OECD, *OECD Factbook*, 2010.
- [36] OECD, *Society at a glance 2005: OECD Social indicators*, 2005.
- [37] D. P. Panagiotopoulos, "Legal policy for sports law in the EU," *한국스포츠법학회*, Vol.11, No.4, pp.31-46, 2008.
- [38] U. Pühse and M. Gerber,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hysical education*, Oxford: Meyer & Meyer Sport, 2005.
- [39] R.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40] M. Ragheb and C. A. Griffith,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to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rs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18, pp.248-258, 1982.
- [41] Ø. Seippel, "Sport and social capital," *Acta Sociologica*, Vol.49, No.2, pp.169-183, 2006.

- [42] E. Å. Skille, "Sport for all? The 'Sports City Programme' in Norway," *Sport in Society*, Vol.7, No.2, pp.192-210, 2004.
- [43] E. Å. Skille, "Understanding sport clubs as sport policy implementer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Vol.43, No.2, pp.181-200, 2008.
- [44] Sport and Recreation New Zealand, *2007/2008 Active New Zealand survey*, 2008.
- [45] Statistics Norway, *Culture statistics 2008*, 2010.
- [46] A. B. Ulseth, "Social integration in modern sport: Commercial fitness centres and voluntary sports clubs," *European Sport Management Quarterly*, Vol.4, pp.95-115, 2004.
- [47]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World value survey 1981-2008 official aggregate*, 2009.

#### 저 자 소 개

조 욱 연(Woogyeon Jo)

정회원



- 2012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졸업
- 2008년 3월 ~ 현재 :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시간 강사

<관심분야> : 스포츠 정책, 스포츠 사회학